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국내 동향 및 내용 분석 : 신앙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사범학부 박병숙

Ⅰ. 서론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전 생애적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의 인지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뿐 아니라 가치관, 태도, 정서적 반응 양식, 그리고 신앙 형성의 방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기는 외적 지식을 축적하는 시기이기 이전에 삶을 해석하는 기본 틀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유아기의 신앙교육은 단순히 종교 지식을 조기에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9년의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유아기의 신앙 형성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더 강한 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유아기의 종교 체험과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김미영, 2019).

기독교 유아교육에서 성경이야기는 이러한 신앙 형성의 핵심 매체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이야기는 유아에게 추상적인 교리 체계를 직접 주입하기보다 이야기, 인물, 사건, 관계, 갈등, 회복의 구조를 통해 신앙 내용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2019년 연구는 성경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기독교 교육의 이유이자 근원, 그리고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정리하였다(김미영, 2019). 이는 성경이야기가 단순한 교수 자료가 아니라 기독교 유아교육의 내용적 중심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성경이야기는 신앙교육의 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다양한 발달 영역과도 연결되어 연구되어 왔다. 2019년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의 성경이야기 활용 실험연구들은 기독교적 개념, 신앙발달, 하나님 개념과 같은 신앙 관련 변인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측면, 언어, 창의성 등 다양한 종속변인을 다루고 있었다(김미영, 2019). 이러한 결과는 성경이야기 활용이 유아의 신앙 형성뿐 아니라 전인적 발달과도 관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문제도 함께 드러난다. 성경이야기 활용의 교육적 의미가 폭넓게 논의되는 반면, 정작 성경이야기 자체가 담고 있는 신학적 내용과 신앙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심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 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련 실험연구가 총 15편에 그쳤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김미영, 2019). 이 연구는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활동 개발, 다양한 중재방법 연구, 기독 유아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즉, 당시의 연구는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그

이후 축적된 연구들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시계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성을 남겼다.
이후 발표된 메타분석은 이러한 필요성을 한층 더 분명히 보여준다. 이지영과 김성원(2020)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유아 대상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 연구 14편을 분석한 결과, 전체 효과크기가 1.62로 나타났고 종속변인 유형 가운데 신앙 변인의 효과크기가 1.5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이 단지 주변적 정서 자극이나 활동 흥미 유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신앙 관련 변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 메타분석 역시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후속연구에서는 면담과 관찰을 포함한 질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이지영·김성원, 2020). 이는 단순한 효과 검증을 넘어 연구내용 자체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최근 아동의 영성 연구는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Eaude(2026)는 아동의 영성 연구를 검토하면서 영적 차원은 도덕적 차원 및 종교적 차원과 중첩되며, 이 세 차원을 분리된 영역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발달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유아의 신앙을 단지 교리적 이해나 종교적 행동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관계, 의미, 가치, 도덕적 감수성, 존재 이해와 연결된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조명하게 한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 역시 신앙, 도덕, 사회정서, 인성의 관계를 분절적으로만 보기보다, 성경이야기가 유아의 삶과 발달 전반에 어떠한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Eaude, 2026).

또한 개별 실험연구들은 성경이야기 활용이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사회적 차원에도 실제적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해 왔다. 박수진과 김미경(2013)은 성경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 등 여러 하위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이야기가 단지 듣고 이해하는 인지적 자료에 그치지 않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결과는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가 신앙과 사회정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신앙교육의 실천이 관계적·도덕적 행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수진·김미경, 2013).

이처럼 2019년 연구동향 분석, 2020년 메타분석, 그리고 최근의 영성 연구와 개별 실험연구를 종합해 보면,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는 분명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가진 영역이지만, 그 연구 축적이 아직 충분히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19년 이후의 연구를 포함하여 2005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체 흐름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가 어떤 주제와 변인에 집중해 왔는지, 신앙 관련 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재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 연구의 수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축적된 문헌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연구내용의 특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기독교 유아교육의 기본 전제는 유아를 단지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지영과 김성원(2020)은 유아기가 개인의 인격과 신앙 발달의 기초가 놓이는 시기이며, 유아는 인지적·언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서 보기 어려운 영적 민감성을 지닌다고 정리하였다. 이는 유아기의 기독교교육이 단순한 예비교육이 아니라 신앙 형성의 실질적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을 다루는 연구는 단순히 흥미로운 교수활동 하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영적 발달 가능성과 기독교교육의 출발점을 다루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이지영·김성원, 2020).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성 연구는 유아교육적 시사점을 확장시킨다. Eaude(2026)는 아동의 영성 연구를 검토하면서 영적 차원이 도덕적 차원, 종교적 차원과 중첩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차원을 길러 주는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아기의 신앙교육을 교회 혹은 종교기관 내의 제한된 종교 활동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아동의 삶 속에서 의미, 가치, 관계를 형성하는 보다 넓은 교육의 차원으로 해석하게 한다. 다시 말해 유아의 신앙은 단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 하나님, 세계를 어떤 관계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를 신학적 개념, 도덕적 감수성, 사회정서적 발달, 인성 형성의 경계 지점에서 읽게 하며, 문헌연구에서도 그 상호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다(Eaude, 2026).

성경이야기의 교육적 의미는 여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2019년 연구는 성경이야기를 기독교 교육의 이유, 근원 및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았고, 유아기 신앙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김미영, 2019). 성경이야기는 추상적인 교리를 서사적 형태로 풀어냄으로써 유아가 인물, 사건, 갈등, 선택, 회복의 과정을 통해 신앙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유아는 이야기와 놀이, 상징, 모방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이므로, 성경이야기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신앙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는 단지 활동 효과를 측정하는 실용적 관심에 머무를 수 없고, 왜 하필 성경이야기가 유아교육의 중요한 내용적 자원이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함께 다루어야 한다.

국내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해 왔다. 김미영(2019)의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면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들은 기독교적 개념, 하나님 개념, 신앙발달, 종교적 행복감과 같은 신앙 관련 변인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도덕 판단력과 행동, 언어, 창의성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었다. 이 중에서 2019년 분석 당시 종속변인은 기독교 관련 변인 40%, 사회·정서 관련 변인 48%, 언어 8%, 창의성 4%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가 신앙교육의 장을 넘어 전인적 발달과 접속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신앙 자체보다 사회·정서 영역에 더 큰 비중이 배정되는 경향도 있음을 보여준다(김미영, 2019).

그러나 이후의 메타분석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이지영과 김성원(2020)은 종속변인

을 신앙, 사회정서 및 언어, 인성으로 분류하여 효과크기를 비교했는데, 신앙 변인의 효과크기가 1.5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기존 개별 연구들에서 신앙 관련 변인이 양적으로 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효과의 측면에서는 신앙 변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 축적은 사회정서와 인성 효과를 자주 보고해 왔지만,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효과는 결국 신앙 관련 변인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문헌연구에서는 단순히 종속변인의 빈도를 세는 수준을 넘어,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가 신앙 변인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해 왔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지영·김성원, 2020).

또한 개별 연구 차원에서 보면 성경이야기 활용은 유아의 실제 행동과 정서적 상호작용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수진과 김미경(2013)은 성경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이 일반 동화를 들려주는 활동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이야기 활용이 단순한 신앙 지식 전달을 넘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조망수용 능력, 협동의 가치 이해, 관계적 행동 실천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를 신앙 대 사회정서의 대립 구도로 보기보다, 성경이야기가 신앙과 인성, 관계 행동을 함께 매개하는 교육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박수진·김미경,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남아 있다. 첫째, 2019년 연구가 지적했듯이 국내에서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양 자체가 충분히 풍부하지 않으며, 특정 시기와 특정 기관, 특정 연구유형에 편중된 경향이 존재한다(김미영, 2019). 둘째, 2020년 메타분석은 연구 효과를 종합하는 데 기여했지만, 양적 실험연구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질적 자료와 보다 폭넓은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이지영·김성원, 2020). 셋째, 최근 영성 연구가 제기하는 통합적 관점에 비해 국내의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는 여전히 특정 활동이나 효과 검증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2019년 이후 발표된 논문들을 포함하여 2005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체 문헌을 대상으로 다시 동향을 검토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성경이야기 활용 관련 국내 문헌을 장기적 시간 범위에서 다시 정리하고, 연구의 전반적 흐름과 연구내용의 특징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본 연구의 필요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존 2019년 연구가 제시한 동향 분석을 2026년 현재까지 확장하여, 최근 축적된 연구를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년 메타분석이 제시한 신앙 변인의 높은 효과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내용적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영성 연구의 시각을 반영하여 성경이야기 활용을 신앙, 도덕, 사회정서, 인성의 관계 안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5년부터 2026년까지의 문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계획은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기존 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향후 기독교 유아교육 연구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작업으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6년까지 발간된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관련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연구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독교 유아교육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 연구가 언제 얼마나 발표되었고 어떤 유형과 기관에서 수행되었는지와 같은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둘째, 연구 참여자, 연구 환경,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성경이야기 활용 방식과 같은 연구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성경이야기 활용이 신앙 관련 변인뿐 아니라 사회정서, 인성, 언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메타분석에서 신앙 변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가 신앙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어떤 관련 속에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연구내용에 따른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신앙 관련 변인의 연구 양상과 향후 과제는 어떠한가?

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유아 대상 성경이야기 활용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연구내용의 특성을 파악하며, 신앙 관련 변인의 연구 양상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는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메타분석은 아니지만, 문헌의 검색과 선정, 분석 절차를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실제로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는 PRISMA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대상 정의, 문헌 검색, 문헌 선정, 자료 분석의 순서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절차적 명료성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이지영, 김성원, 2020).

2. 분석 대상 문헌의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흐름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분석 대

상 문헌의 범위를 실험연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증 자료를 포함한 연구 전반으로 확장하여 설정하였다. 다만 연구문제의 초점이 실제 연구 동향과 연구내용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순수 이론 논문이나 단순 소개 글은 제외하였다.

표 1. 문헌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연구대상	유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연구내용	성경이야기, 성경동화, 성경그림책,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 성경이야기 활동 등을 핵심 교육 내용으로 활용한 연구
시기	2005년부터 2026년까지 발표된 연구
출판 형태	국내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포함 연구유형	실험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제외 대상	단순 이론 소개, 설교문, 교육자료 소개문, 서평, 중복게재 문헌

이와 같은 기준은 성경이야기를 직접 교육 내용으로 활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효과 검증 연구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의미와 적용 양상을 다룬 연구까지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성경을 읽거나 듣고 그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만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 실험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질적 자료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이지영, 김성원, 2020). 또한 성경 이야기를 통한 가정 연계 유아 성품 프로그램 연구는 유아의 성품 변화가 삶의 맥락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면서, 반복적 읽기와 의미 분석, 삼각측정, 참여자 확인 등의 절차를 활용한 질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김성원, 신현정,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연구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연구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3. 문헌 검색 방법

문헌 검색은 국내 주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검색 경로는 RISS, KISS, DBpia, KCI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최종 선정된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활용하여 추가 문헌을 확인한다. 검색어는 연구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경이야기 AND 유아’, ‘성경동화 AND 유아’, ‘성경그림책 AND 유아’,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 AND 유아’, ‘기독교 유아교육 AND 성경이야기’, ‘성경동화 활동 AND 유아’ 등으로 설정한다. 최근 연구의 초록 및 제목 표기를 고려하여 ‘Bible story AND young children’과 같은 보조 검색어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검색된 문헌은 우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주제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후 본문을 확인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대상이 유아가 아니거나, 성경이야기가 교육의 핵심 내용이 아니거나, 동일한 연구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형태로 중복 제시된 경우는 제외 또는 조정한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술지 논문을 우선하되, 학술지 논문에 생략된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보조적으로 검토한다.

4. 문헌 선정 절차

문헌 선정은 1차 검색, 2차 적합성 검토, 3차 본문 검토, 4차 최종 선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차 검색에서는 검색어를 활용하여 관련 문헌을 최대한 폭넓게 확보한다. 2차 적합성 검토에서는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3차 본문 검토에서는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설계, 출판 형태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참고문헌 추적을 통해 누락된 문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분석 대상 문헌을 확정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절차는 문헌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선택을 줄이고, 분석대상 선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문헌 검색과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절차적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이지영, 김성원, 2020).

5. 문헌 분석 방법

최종 선정된 문헌은 연구문제에 따라 세 수준에서 분석한다.

첫째,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발표 연도, 출판 유형, 발표 기관 또는 학위수여 기관, 연구 설계, 연구 참여자의 연령과 표본 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 시기에 연구가 집중되었는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의 분포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연구가 어떤 기관과 학문적 배경 속에서 수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연구내용에 따른 동향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환경, 사용된 성경이야기 및 활동 유형,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구성, 자료수집 도구, 분석 방법 등을 검토한다.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성경, 그림책, 인형극 및 놀이극, 인성 및 기본생활습관, 말리듬, 오감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인을 신앙 변인, 사회정서 및 언어 변인, 인성 변인으로 분류하였다(이지영, 김성원,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를 참고하되, 개별 문헌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경이야기

내용, 활용 방식, 교육활동 유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신앙 관련 변인의 연구 양상과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 개념, 기독교 개념, 신학적 개념, 종교적 행복감, 신앙발달, 영적 건강 등과 같이 신앙과 직접 관련된 종속변인이 어떤 빈도로 등장하는지, 어떠한 도구와 개념으로 측정되었는지, 사회정서 및 인성 변인과는 어떤 관계 속에서 다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선행 메타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의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신앙 변인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를 분석할 때 신앙 관련 변인을 보다 분명한 분석 축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이지영, 김성원, 2020).

표 2. 문헌 분석의 기준

분석 영역	세부 내용
전반적 연구 동향	발표 연도, 출판 유형, 발표 기관, 연구 설계
연구대상 특성	연령, 표본 수,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환경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일반 유아교육기관, 가정 연계 환경 등
독립변인	성경이야기 주제, 성경동화·그림책 활용, 극놀이, 오감활동, 가정 연계 프로그램 등
종속변인	신앙 변인, 사회정서 및 언어 변인, 인성 변인
자료 수집 및 분석	검사도구, 관찰, 면담, 통계 분석, 질적 분석 방법
신앙 관련 변인 분석	하나님 개념, 신앙발달, 기독교 개념, 종교적 행복감, 영적 건강, 향후 과제

6.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 방안

문헌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반복적 읽기와 범주화 과정을 거쳐 분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먼저 최종 선정된 문헌을 반복하여 읽으며 연구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고, 이후 유사한 특성을 가진 내용끼리 범주화한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분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범주를 참조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특히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 연구가 제시한 신앙, 사회정서 및 언어, 인성의 분류 틀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 범주화에 유용한 기준이 된다(이지영, 김성원, 2020).

또한 질적 성격을 지닌 문헌의 경우, 연구자가 제시한 의미 해석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김성원과 신현정(2018)은 질적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 읽기, 삼각측정, 참여자 확인, 연구자 간 논의, 지속적 관찰 등을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원리는 문헌연구에서도 개별 연구의 해석 맥락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빈도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개별 연구가 성경이야기 활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Ⅴ.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관련 국내 연구를 장기적 흐름 속에서 재검토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축적 양상과 특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200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가 어떠한 주제와 방법, 변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별 연구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유아 대상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전반적 지형을 정리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동향 분석을 계승하면서도 신앙 관련 변인을 중심 분석축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 정서, 언어, 인성 등 다양한 발달 영역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정작 신앙 관련 변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하나님 개념, 기독교 개념, 신앙발달, 종교적 행복감 등 신앙 관련 변인의 연구 양상을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가 지닌 기독교 유아교육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의 구조를 재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기존 연구들이 어떠한 중재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신앙 관련 변인과 일반 발달 변인을 어떠한 관계 속에서 다루었는지, 개념 정의와 측정 방식은 얼마나 일관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구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방법론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 유아교육 현장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동향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과 교회학교, 가정연계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방식의 성경이야기 활용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앙 형성과 발달을 보다 분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독교 유아교사 교육과 부모교육 차원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아기의 신앙교육이 단지 종교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 인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왔음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교육의 통합적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정리하는 동시에,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제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Ⅵ.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활용 관련 국내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나,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외 연구 동향과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경이야기 활용 연구의 국제적 흐름이나 해외 기독교 유아교육 연구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정한 검색어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헌을 수집하므로, 검색 과정에서 누락되는 문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일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제목이나 초록에 사용된 용어가 상이한 경우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외의 비정형 자료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선정 기준에 따라 확보된 문헌에 기초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개별 프로그램의 실제 교육 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효과나 결과를 재검토하고 경향성을 분석할 수는 있으나, 성경이야기 활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맥락과 과정적 의미를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신앙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해석의 주관성이 일부 개입될 수 있다. 신앙 관련 변인은 개념의 폭이 넓고 연구마다 용어 사용과 정의 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 틀로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류와 해석은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 시점까지 검색 가능한 문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후 발표되는 새로운 연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시점까지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미영. (2019). 유아를 위한 성경 이야기 활동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및 발전 과제. 포괄영유아아동교육지원연구, 7(3), 1-20.

김성원, & 신현정. (2018). 성경 이야기를 통한 가정 연계 유아 성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58, 165-198.

박수진, & 김미경. (2013). 성경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8, 165-188.

이지영, & 김성원. (2020).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기독교교육정보, 65, 1-30.
Eaude, T. (2026). Exploring some implications for spiritual, moral and religious education of the research on children's spirituali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74(1), 31-48.